

한국판 단축형 복수 성향 척도(K-BSVT-11)의 타당화

김 상 회	유 제 민	현 명 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교수	교수

복수는 해를 끼친 상대를 처벌하거나 고통을 되돌려주기 위한 행위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한국판 단축형 복수 성향 척도(Korean Version-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11 [K-BSVT-11])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내 성인 292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척도는 ‘복수 계획’, ‘원한’, ‘복수 정당화’의 3요인 구조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복수 계획 및 실행’과 ‘복수 정당화’의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이는 한국인이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과 관련하여, 응답 과정에서 정서적 반응보다는 행동적·인지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아울러 K-BSVT-11은 내적 일치도가 양호했으며,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역시 입증되었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K-BSVT-11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점수가 높았으며, 30대가 50대보다 복수 계획 및 실행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K-BSVT-11은 한국 문화에서 복수 성향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복수 성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복수, 복수 성향 척도, 타당화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현명호,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복수는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사회적 현상으로, 부당한 대우나 피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반응이며, 복수심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Gollwitzer & Denzler, 2009; Grobbink et al., 2015). 이와 유사한 개념인 보복은 상대방이 가한 피해에 상응하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데 초점을 두며, 주로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진다(Stuckless & Goranson, 1992). 반면, 복수는 억울함, 분노, 고통 등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개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진 후에 이루어진다(Jones & Carroll, 2007). Vos(2003)는 복수 욕구의 주요 요소로 ‘모멸감(자존감 손상)’, ‘부당하다는 믿음’, ‘권력 평등의 회복 욕구’,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도덕적 우위를 추구하는 욕구’를 제시하며, 복수가 단순한 감정적 해소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 권력 재조정, 도덕적 우월성 추구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인 과정임을 강조했다.

복수는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방식으로 실행된다. 은밀한 복수의 예로는 소문 퍼뜨리기, 부정적 평가, 정보 은폐, 무시 및 배제 등이 있다(Bordia et al., 2014; Grégoire et al., 2010; Wang et al., 2018; Zhao et al., 2016). 이러한 방식은 주로 누군가의 평판을 은밀히 훼손하거나 권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며, 공개적인 복수는 반격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로 상사와 직원 같은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서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전략이다(Christian et al., 2012). 한편, 가해자가 아닌 제3자나 더 넓은 집단에 복수심이 전이되어 복수를 하기도 하며, 원래의 갈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집단 정체

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 하여 복수를 대신하는 대리 복수도 있다(Campbell, 1958; Lickel et al., 2006). 복수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기도 한다(Lee et al., 2014). 이처럼 복수는 실행 방식, 대상, 지속 기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다.

복수는 미래의 위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생물학적 모델에서는 복수를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해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반복적인 속임수나 공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전략으로 설명한다(McCullough et al., 2013; Sell et al.,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신체적 힘은 복수의 실행 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남성과 상체 근육이 더 강한 사람이 복수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Eaves et al., 2008; Sell et al., 2009). 문화적 진화론자는 복수가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기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규범이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함께 발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Fehr & Henrich, 2003). 복수는 규범을 위반한 개인적 공격에 대한 분노로부터 비롯되며, 집단의 규범적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Elster, 1990; Fehr et al., 2002). 특히 법 제도가 약하거나 규범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복수가 더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복수는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Duntley & Shackelford, 2008). 또한 신경영상 연구에서는 복수를 하거나 복수를 기대하는 과정에서 뇌의 보상 관련 영역인 복측 선조체(ventral striatum)의 활성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복수 행동이 만족감과 보상을 유발하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Brüne et al., 2013).

반면, 복수는 위험과 심각한 결과를 수반할 수 있다. McCullough 등(2003)은 개인이 용서를 택할 경우 웰빙이 증진되지만 복수심을 선택하면 웰빙이 감소한다고 한다. 복수에 대한 생각은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강렬한 내적 갈등을 일으켜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등 심리적 건강을 악화시킨다(Yoshimura, 2007). 복수를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복수 직후 일시적으로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고는 오히려 몇 분 안에 후회와 반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Carlsmith et al., 2008). 아울러 복수는 사회적 관계에 문제를 야기하고 다시 보복을 당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인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Jackson et al., 2019).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자살 충동, 계획, 시도 등의 형태로 자신을 향하게 되기도 한다(Gray et al., 2003).

이렇듯 복수는 기능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여 복수 자체가 무조건 비도덕적이거나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Gabriel과 Monaco(1994)는 복수를 적응적 복수와 부적응적 복수로 구분하였다. 적응적 복수는 부당한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복수 욕구가 약해진다(Horney, 1948; Keyishian, 1982). 반면, 부적응적 복수는 복수에 관한 생각에 지배되어 감정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수 욕구가 증폭된다(Arlow, 1980; Bluestone & Travin, 1984; Boris, 1990).

성격적 취약성은 부적응적 복수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자기애적 성격은 복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과장된 권리 의식으로 인해 타인에게 쉽게 모욕감을 느끼고 이는 자기애의 손상(narcissistic injury)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람은 단순한 충고나 거절조차 자기중심적이고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쉽게 분노를 느낀다. 그 결과,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복수심으로 전환되어 실제 복수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Brown, 2004). 이들에게 복수 행동은 자기에 회복의 한 형태로 해석되며(McClelland, 2010), 높은 자기애는 시간이 지나도 복수심을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Brown, 2004). 이러한 복수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관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성격적 취약성이 부적응적 복수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복수를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대처 전략을 습득하도록 돕는 개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복수를 용서와 대비되는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하고, 용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반응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등 상황에서는 복수보다 용서가 장려되었고, 그 결과 용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복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학문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용서 성향과 복수 성향은 단순히 반대 개념이 아니라 이론적·실증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복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복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

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Brown, 2004). 또한 복수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 관련 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한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하고 정성진(2011)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가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복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나 성향을 측정하기보다는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한 보복 및 회피 동기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분노 반추 척도(Anger Rumination Scale [ARS])는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하고 이근배와 조현춘(2008)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는데, 이 척도는 복수와 관련된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주로 분노의 반추 경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 복수 성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타당화된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복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나 성향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는 Stuckless와 Goranson(1992)의 복수심 척도(Vengeance Scale)가 대표적이며, Acosta 등(2020)이 개발한 다차원적 복수 태도 척도-21(Multidimensional Revenge Attitudes Inventory-21)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는 심리측정의 기본적 특성은 잘 갖추고 있지만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Hu와 Bentler(1999)가 제시한 적합도 기준(CFI와 TLI 지수는 .95 이상, RMSEA는 .06 이하, SRMR은 .08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Flores-Camacho 등(2022)은 기존 복수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단축형 복수 성향 척도(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 [BSVT-11])를 개발하였다. 복수의 주요 동기는 원한이며(Bortolotti, 2020), 이는 반추를 통해 지속된다(Barcaccia et al., 2022).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계획적 과정이 수반되며, 복수 계획이 실제 복수 실행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Elshout et al., 2015). 복수의 강도와 표현 방식은 개인이 인지하는 부당성의 정도와 내면화된 도덕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복수가 합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면 복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Yoshimura, 2007).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BSVT-11은 ‘복수 계획’, ‘원한’, ‘복수 정당화’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기존 복수 척도에서 제기된 타당도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측정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복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Flores-Camacho 등(2022)이 개발한 BSVT-11을 번안하고 한국판 단축형 복수 성향 척도(Korean version-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 [K-BSVT-11])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복수 성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복수심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BSVT-11을 번안하여 K-BSVT-11을 구성하고, 탐색적 접근을 통해 요인의 구성을 확인한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검증할 것이다. 아울러

리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한국판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IM-12-K), 한국판 분노 반추 척도(K-ARS),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Q-K)를 사용해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평가하고, 부차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K-BSVT-11을 비교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는 설문 전문 업체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모집하였으며, 연령대와 성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후 연구에 참여했고, 업체의 정책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었다. 표집 수는 300명으로, 이는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 당 5~10배수의 표본 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Comrey & Lee, 2013).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6명과 Mahalanobis distance를 사용하여 다변량 이상치가 확인된 2명($\chi^2(2)=9.210$, $p<.01$)을 제외한 총 292명의 자료를 분석했다(Parent et al., 2009).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IRB No. 1041078-20241031-HR-311), 2024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설문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44명(49.3%), 여자 148명(50.7%)이었고, 연령대는 20대 72명(24.7%), 30대 73명(25.0%), 40대 73명(25.0%), 50대 74명(25.3%)으로 비교적 균등하였다. 학력은 4년제 대졸이 166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57명(19.5%), 고졸 이하 36명(12.3%), 석사 이상 33

명(11.3%)으로 뒤를 이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단축형 복수 성향 척도(Korean version - 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11 [K-BSVT-11]). Flores-Camacho 등(2022)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어로 변안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다. 복수 계획(planning of revenge), 원한(resentment), 복수 정당화(justification of revenge)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1문항,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함) 형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복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판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12-K [TRIM-12-K]). McCullough 등(1998)이 개발하고 정성진(2011)이 번안, 타당화 한 척도로, 자신이 상처 입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를 얼마나 용서하는지를 측정한다. 가해자에 대한 회피동기(7문항), 가해자에 대한 보복동기(5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형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동기나 보복동기가 강하여 용서 수준이 낮고, 점수가 낮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은 것이다. 정성진(2011)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회피동기와 보복동기는 모두 .87,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동기 .886, 보복동기 .868, 전체 .900이었다.

한국판 분노 반추 척도(K-Anger Rumination Scale [K-ARS]). Sukhodolsky 등(2001)이 개발하고 이근배와 조현준(2008)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로, 분노가 유발된 상황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경향인 분노반추를 측정하기 위해 분노기억반추(8문항), 원인반추(3문항), 보복반추(5문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1: 거의 아니다 -4: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반추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근배와 조현준(2008)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분노기억반추 .90, 원인반추 .76, 보복반추 .75이며, 전체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분노기억반추 .933, 원인반추 .836, 보복반추 .831, 전체는 .948이었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하고 권석만과 서수균(2002)이 번안 및 타당화한 질문지로, 신체적 공격성(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의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형식(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권석만과 서수균(200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신체적 공격행동 .74, 언어적 공격행동 .73, 분노감 .67, 적대감 .76, 전체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는 각 .844, .804, .666, .828이며, 전체는 .928이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BSTV-11의 한국어판 타당화를 위해 원저자인 Flores-Camacho 등(2022)에게 한국어 타당화 작업의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후 본 연구자와 임상심리전문가가 함께 초안 문항을 작성하였다. 다음 단계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의 의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심리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이중언어자가 역번역을 수행했고, 본 연구자와 영어 번역가가 함께 한글본과 역번역본을 검토하여 최종 문항을 확정했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9.0과 Mplus 7을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을 무작위로 표본 1과 표본 2로 나누었다. 이후 표본 2에서 이상치로 판별된 2개의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표본 1은 137명, 표본 2는 155명이었다. K-BSTV-11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개별 측정 변수의 정상성과 다변량 정상성을 가정하지 않을 경우에 유용한 추정 방법인 비가중 최소자승법(Unweighted Least Squares [ULS])을 적용하였다. 또한 요인 간 상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심리측정 도구에 적합하며 단순한 요인 구조를 도출하는 데 유리한 사각회전 방법인 Geomin을 적용하였다(이순목 외, 2016; Browne, 2001). 요인 수는 스크리 도표 및 Kaiser 기준(고유값 1 이상)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비정규성을 고려하여 로버스트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ith Robust Standard Errors [MLR])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와 문항-

총점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척도와 상관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K-BSVT-11 점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U 검정과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K-BSVT-11의 총점 평균은 27.81(±8.529)이다. 하위 척도별로 보면, 복수 계획 및 실행 점수의 평균은 13.66(±5.125), 복수 정당화 점수의 평균은 14.15(±4.122)이다. K-S(Kolmogorov-Smirnov)검

정을 통해 각 문항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의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분석이 가능한 비모수적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K-BSVT-11의 탐색적 요인분석

K-BSVT-11 예비척도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Kaiser-Meyer-Olkin [KMO]을 산출한 결과, .899로 양호했다. Bat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는 $\chi^2(55)=846.763$, $p<.001$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이 확인되었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다음의 정보를 고려하였다. 먼저, 고유값(Eigenvalue) 기준(1 이상)을 적용

표 1. K-BSVT-11 척도의 요인 구조와 요인 부하량

문항	요인		ITC
	1	2	
7 내게 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생각이 내 상상력을 자극한다.	.894	-.013	.800**
4 복수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회열을 느낀다.	.786	-.001	.753**
10 나는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생각을 자주 깊이 한다.	.763	.120	.832**
8 나는 심지어 복수를 실행한 적이 있다.	.759	-.006	.685**
6 나를 공격했던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진 적이 있다.	.736	.144	.756**
1 나는 복수에 관한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605	.265	.729**
9 사법 기관이 내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78	.924	.663**
11 나는 복수가 내가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120	.787	.810**
3 나는 복수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006	.699	.652**
2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나는 복수를 깊이 생각한다.	.024	.721	.657**
5 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면 나는 원한을 품는다.	.148	.642	.685**
고유값	6.555	1.232	
분산비율	59.596	11.201	
누적분산비	59.596	70.797	

주. 원척도의 문항별 요인 분류: 복수 계획(1, 4, 7, 10), 원한(2, 5, 8, 11), 복수 정당화(3, 6, 9).

요인 부하량 .30 이상 볼드 처리, ITC(Item Total Score Correlation).

** $p<.01$.

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스크리 도표 (Scree Plot) 분석에서도 고유값의 감소 추이를 확인한 결과, 요인 수는 2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요인 구조를 최적의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최적 모형의 결과 및 각 문항의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요인 부하량 .3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이상에 .30을 넘는 요인 부하량을 갖거나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을 넘지 못하는 문항이 없어 교차 적재가 관찰되지 않았다(Osborne & Costello, 2019). 이에 따라 원척도의 11개 문항이 모두 유지되었다. 두 요인은 전체 분산의 70.797%를 설명하며, 두 요인의 상관(r)은 .698($p < .001$)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문항이 공통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결정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할 가능성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복수 계획 및 실행’(이하 요인 1)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원한이나 억울한 경험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정서적 근거로 작용하며, 복수의 필요성을 인지적으로 정당화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복수 정당화’(이하 요인 2)로 명명하였다.

K-BSVT-11의 확인적 요인분석

K-BSVT-11의 구조적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2요인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CFI는 .945, TLI는 .930으로 적합도가 양호하였고, SRMR 역시 .044로 양호한 적합도 기준인 .08이하에 해당하였다. RMSEA도 .078로 괜찮은 수준의 적합도에 해당하였다(홍세희, 2000; Hu & Bentler, 1999).

다음으로, 원저자가 제안한 3요인 구조모형과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해, 원척도의 요인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3요인 구조모형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2요인 구조모형에 비해 전반적인 적합도가 낮았다(표 2). 이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2요인 구조모형이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K-BSVT-11의 신뢰도

K-BSVT-11의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15로 매우 양호하였고, 하위 요인별 내적 일치도는 요인 1이 .891, 요인 2가 .846으로 모두 양호하였다. 문항-총점 간 상관(Item-Total Correlation [ITC]) 분석 결과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Spearman

표 2. K-BSVT-1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N=155$)

모형	$\chi^2(df)$	CFI	TLI	SRMR	RMSEA (90% CI)
2 Factor	83.395*** (43)	.945	.930	.044	.078(.052, .103)
3 Factor	102.419*** (41)	.917	.889	.052	.098(.075, .122)

*** $p < .001$.

의 순위 상관계수(r_s)의 범위가 .652에서 .832까지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K-BSVT-11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

K-BSVT-11의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복수 행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보고된 보복 동기, 복수심을 지속시키고 강화하는 인지적 요인인 분노 반추, 그리고 복수심의 행동적 발현과 관련된 공격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복수하려는 동기와 구별되는 비공격적 반응인 회피 동기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K-BSVT-11의 총점 및 하위 요인은 모두 보복 동기, 분노 반추, 공격성과 중간

에서 강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양호하였다.

회피 동기와의 상관에서는 K-BSVT-11의 총점($r_s=.122$, $p<.05$)과 하위 요인인 복수 정당화($r_s=.220$, $p<.01$)에서 약한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으며, 복수 계획 및 실행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_s=.046$, $p>.05$). 이러한 결과는 K-BSVT-11의 변별 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K-BSVT-11의 차이

K-BSVT-11로 측정한 복수 성향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녀 간에 유의

표 3. K-BSVT-11과 주요 변인 간 상관 ($N=292$)

	K-BSVT-11 총점	K-BSVT-11 복수 계획 및 실행	K-BSVT-11 복수 정당화
TRIM-12-K			
총점	.442**	.342**	.512**
회피 동기	.122*	.046	.220**
보복 동기	.689**	.593**	.699**
K-ARS			
총점	.587**	.560**	.520**
분노기억 반추	.564**	.539**	.497**
원인 반추	.374**	.335**	.360**
보복 반추	.616**	.589**	.543**
AQ-K			
총점	.577**	.584**	.467**
신체적 공격	.557**	.553**	.462**
언어적 공격	.431**	.450**	.330**
분노감	.431**	.457**	.327**
적대감	.484**	.491**	.382**

주. K-BSVT-11=Korean version-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11, TRIM-12-K=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Inventory-12-K, K-ARS=K-Anger Rumination Scale, AQ-K=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 $p<.05$, ** $p<.01$.

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복수 총점($U=7829.000$, $Z=-3.922$, $p<.001$), 복수 계획 및 실행($U=7949.500$, $Z=-3.760$, $p<.001$), 복수 정당화($U=8261.000$, $Z=-3.330$, $p<.001$) 모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Kruskal-Wallis H 검정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복수 총점($H(3)=5.570$, $p>.05$) 및 복수 정당화($H(3)=2.076$, $p>.05$)는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복수 계획 및 실행 요인에서는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H(3)=9.282$, $p<.05$), Mann-Whitney U 검정으로 사후 분석한 결과, 30대($M=14.99$, $SD=5.179$)가 50대($M=12.64$, $SD=4.833$)보다 유의하게 높은 복수 계획 및 실행 점수를 보였다($U=1978.000$, $Z=-2.807$, $p<.01$).

한편, 학력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Kruskal-Wallis H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복수 총점: $H(3)=1.484$, $p>.05$; 복수 계획 및 실행: $H(3)=.346$, $p>.05$; 복수 정당화: $H(3)=4.333$, $p>.05$).

논 의

본 연구는 Flores-Camacho 등(2022)이 개발한 복수 성향 척도(K-BSVT-11)를 국내에 타당화하여 심리 측정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 구조, 모델 적합성,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했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K-BSVT-11 점수를 비교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K-BSVT-11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BSVT-11의 11개 문항은 모두 유지되었으나, 원척도의 3요인 구조(복수 계획, 원한, 복수 정당화)와는 달리 2요인 구조가 추출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2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양호-괜찮은 수준의 모델 적합도를 보여 수용 가능한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재구성된 K-BSVT-11의 요인 구조를 살펴보면, 원척도의 원한 요인에 속했던 일부 문항과 복수 정당화 요인의 특정 문항이 새롭게 재배치되었다. 먼저, 원척도의 복수 정당화 요인에 포함되었던 6번 문항(“나를 공격했던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진 적이 있다”)과 원한 요인에 속했던 8번 문항(“나는 심지어 복수를 실행한 적이 있다”)은 복수 계획 요인으로 재분류되었다. 이 두 문항은 복수 실행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요인에서 분리된 것이다. 이에 새롭게 형성된 요인은 복수의 계획 및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동적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요인은 ‘복수 계획 및 실행’으로 명명되었다.

한편, 원척도의 원한 요인에 속했던 2번 문항(“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나는 복수를 깊이 생각한다”), 5번 문항(“누군가 내게 해를 끼치면 나는 원한을 품는다”), 11번 문항(“나는 복수가 내가 받았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라 생각한다”)은 복수 정당화 요인으로 통합되었다. 해당 문항은 단순한 정서 반응을 넘어, 원한이나 억울함과 같은 정서적 경험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하거나 피해를 복수로 회복할 수 있다는 인지적 평가를 반영한다. 이러한 정서와 인지적 평가가 결합되어 복수를 피해 회복의 수단

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요인은 ‘복수 정당화’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요인 구조의 변화는 한국 문화적 특성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재구성된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복수의 원인이 원한과 부정적 감정 해소와 같은 정서적 요인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행동적 측면과 정당화하는 심리적·사회적 이유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인은 부정적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은경, 서은국, 2009). 억제적 성격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생리적, 행동적 지표와 달리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부정하면서 감정을 과잉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Weinberger et al., 1979).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은 문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반응보다는 복수의 실행 가능성이나 정당화 이유와 같은 행동이나 인지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이 K-BSVT-11의 요인 구조를 ‘복수 계획 및 실행’과 ‘복수 정당화’의 2요인 구조로 재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K-BSVT-11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이었고, 문항-총점 간 상관(ITC)도 모든 문항에서 높았다. K-BSVT-11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보복 동기, 분노 반추, 공격성과는 중간에서 강한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 타당도가 양호했다. 반면, 복수와 구별되는 비공격적 반응인 회피 동기와는 복수 정당화 요인에서 약한 상관이 나타났고, 복수 계획 및 실행 요인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아, 변별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K-BSVT-11을 통해 복수 성향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모든 하위 요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남성이 복수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Flores-Camacho et al., 2022; Miller et al., 2008). 이러한 차이는 성 고정관념과 사회 학습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순응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태도가 장려된 반면, 남성은 공격적 행동과 복수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허용되고 강화되었다(Feld & Felson, 2008). 아울러 남성이 여성보다 용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Mullins et al., 2004; Hamama-Raz et al., 2008)도 남성의 높은 복수 성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에 따른 복수 정당화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수 계획 및 실행 점수에서는 30대가 50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여러 관계 유형 중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복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Cota-McKinley et al., 2001), 이는 직장 내 갈등과 스트레스가 복수 행동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30대는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지만, 조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울 경우, 축적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복수 행동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연령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직위 및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어 실무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원저자가 강조한 높은 수준의 모델 적합도 기준(CFI와 TLI $\geq .95$, RMSEA $\leq .06$)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모델의 수정 및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복수 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직업군, 고용 형태, 직위와 같은 직업적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복수 성향은 직장 내 권력 불균형이나 부당한 대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Cota-McKinley et al., 2001).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직업군, 고용 형태, 직위와 같은 직업적 변인을 포함하여 이러한 변인이 복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직업적 맥락이 복수 성향과 관련하여 어떤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92명의 표본을 탐색적 요인분석(137명)과 확인적 요인분석(155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표본 크기는 표본 수 100~150명이 적절하다는 기준(박원우 외, 2010)과 설문 문항 수보다 최소 5배 이상이 필요하다는 기준(Comrey & Lee, 2013)을 충족한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표본을 권장하고 있다(Kline,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일부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결과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큰 표본을 확보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회피 동기 척도만을 사용하여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용서, 공감 등 복수 성향과 대조되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변별 타당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복수 성향 척도를 한국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타당화한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원척도와 달리 본 연구에서 2요인 구조가 도출된 것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복수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지만,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는 K-BSVT-11 척도를 활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복수 성향과 관련된 심리적 기제 및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자기에 성향 등 성격적 취약성과 복수 성향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후속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 내 갈등 관리, 범죄 심리 분석 및 법 심리학적 평가 등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복수 성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서수균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87-501. <https://doi.org/10.1584/kjcp.2002.21.2.015>
- 박원우, 손승연, 박해신, 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 (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https://hdl.handle.net/10371/144993>
- 이근배, 조현춘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2768705>
- 이은경, 서은국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https://doi.org/10.21193/kjspp.2009.23.1.008>
- 이순묵,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https://doi.org/10.22257/kjp.2016.03.35.1.217>
- 정성진 (2011). 한국판 가해행동 대인동기 척도 (TRIM-12-K)의 타당화 연구. *학문과기독교세계관*, 2, 225-241.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2926319>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https://accesson.kr/kjcp/v.19/1/161/26659>
- Acosta, M., Pirani, S., Garcia, A., Wainwright, K., & Osman, A. (2020). Evaluati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ultidimensional Revenge Attitudes Inventory-21. *Psychological Assessment*, 32(12), 1172-1183. <https://doi.org/10.1037/pas0000951>
- Arlow, J. A. (1980). The revenge motive in the primal scene.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28(3), 519-541. <https://doi.org/10.1177/000306518002800302>
- Barcaccia, B., Salvati, M., Pallini, S., Saliani, A. M., Baiocco, R., & Vecchio, G. M. (2022). The bitter taste of revenge: Negative affect, depression and anxiety. *Current Psychology*, 41(3), 1198-1203. <https://doi.org/10.1007/s12144-020-00643-1>
- Bluestone, H., & Travin, S. (1984). Murder: The ultimate conflict.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4(2), 147-167. <https://doi.org/10.1007/BF01248295>
- Bordia, P., Kiazad, K., Restubog, S. L. D., DiFonzo, N., Stenson, N., & Tang, R. L. (2014). Rumor as Revenge in the workplace.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9(4), 363-388. <https://doi.org/10.1177/1059601114540750>
- Boris, H. N. (1990). Identification with a venge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1, 127-140.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identification-with-vengeance/docview/1298197474/se-2?accountid=10113>
- Bortolotti, R. G. (2020). Resentment and revenge: Conservation and breakdown of the political space in Arendt. *Griot: Revista de Filosofia*, 20(2), 360-379. <https://doi.org/10.31977/grirfi.v20i2.1756>
- Brown, R. P. (2004). Vengeance is mine: Narcissism, vengeance, and the tendency to forgiv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8(6), 576-584. <https://doi.org/10.1016/j.jrp.2003.10.003>
- Browne, M. W. (2001). An overview of analytic rotation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6(1), 111-150.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601_05
- Brüne, M., Juckel, G., & Enzi, B. (2013). "An eye for an eye"? Neural correlates of retribution and forgiveness. *PLoS One*, 8(8), Article e7351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73519>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https://doi.org/10.1037/0022-3514.63.3.452>
- Campbell, D. T. (1958). Common fate, similarity, and

- other indices of the status of aggregates of persons as social entities. *Behavioral Science*, 3(1), 14-25. <https://doi.org/10.1002/bs.3830030103>
- Carlsmith, K. M., Wilson, T. D., & Gilbert, D. T. (2008). The paradoxical consequences of reve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1316-1324. <https://doi.org/10.1037/a0012165>
- Comrey, A. L., & Lee, H. B. (2013). *A first cours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y press.
- Cota-McKinley, A. L., Woody, W. D., & Bell, P. A. (2001). Vengeance: Effects of gender, age, and religious background. *Aggressive Behavior*, 27(5), 343-350. <https://doi.org/10.1002/ab.1019>
- Duntley, J., & Shackelford, T. K. (Eds.). (2008). *Evolutionary forensic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Eaves, L. J., Hatemi, P. K., Prom-Womley, E. C., & Murrelle, L. (2008). Social and genetic influences on adolescent religious attitudes and practices. *Social Forces*, 88(4), 1621-1646. <https://doi.org/10.1353/sof.0.0050>
- Elshout, M., Nelissen, R. M., & Van Beest, I. (2015). A prototype analysis of vengeance. *Personal Relationships*, 23(3), 502-523. <https://doi.org/10.1111/pere.12092>
- Elster, J. (1990). Norms of revenge. *Ethics*, 100(4), 862-885. <https://doi.org/10.1086/293238>
- Fehr, E., Fischbacher, U., & Gächter, S. (2002). Strong reciprocity, human cooperation, and the enforcement of social norms. *Human Nature*, 13, 1-25. <https://doi.org/10.1007/s12110-002-1012-7>
- Fehr, E., & Henrich, J. (2003). *Is strong reciprocity a maladaptation? On the evolutionary foundations of human altruism* (CESifo Working Paper No. 859; IZA Discussion Paper No. 712). CESifo & IZA. <http://doi.org/10.2139/ssrn.382950>
- Feld, S. L., & Felson, R. B. (2008). Gender norms and retaliatory violence against spouses and acquaintances. *Journal of Family Issues*, 29(5), 692-703. <https://doi.org/10.1177/0192513X0731209>
- Flores-Camacho, A. L., Castillo-Verdejo, D. L., & Penagos-Corzo, J. C. (20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 (BSVT-11) in a Mexican sample. *Behavioral Sciences*, 12(7), Article 215. <https://doi.org/10.3390/bs12070215>
- Gabriel, M. A., & Monaco, G. W. (1994). "Getting even": Clinical considerations of adaptive and maladaptive vengeanc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22(2), 165-178. <https://doi.org/10.1007/BF02190472>
- Gollwitzer, M., & Denzler, M. (2009). What makes revenge sweet: Seeing the offender suffer or delivering a messa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840-844. <https://doi.org/10.1016/j.jesp.2009.03.001>
- Gray, N. S., Hill, C., McGleish, A., Timmons, D., MacCulloch, M. J., & Snowden, R. J. (2003). Prediction of violence and self-harm i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prospective study of the efficacy of HCR-20, PCL-R, and psychiatric symptomat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3), 443-451. <https://doi.org/10.1037/0022-006X.71.3.443>
- Grégoire, Y., Laufer, D., & Tripp, T. M. (2010). A comprehensive model of customer direct and indirect revenge: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erceived greed and customer power.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38, 738-758. <https://doi.org/10.1007/s11747-009-0186-5>
- Grobink, L. H., Derksen, J. J., & van Marle, H. J. (2015). Revenge: An analysis of its psychological underpinn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9(8), 892-907. <https://doi.org/10.1177/0306624X13519963>
- Hamama-Raz, Y., Solomon, Z., Cohen, A., & Laufer,

- A. (2008). PTSD symptoms, forgiveness, and revenge among Israeli Palestinian and Jewish adolesc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6), 521-529. <https://doi.org/10.1002/jts.20376>
- Horney, K. (1948). The value of vindictive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8*(1), 3-12. <https://doi.org/10.1007/BF01871591>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Jackson, J. C., Choi, V. K., & Gelfand, M. J. (2019). Revenge: A multilevel review and synthe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0*(1), 319-345.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8-103305>
- Jones, D. A., & Carroll, S. A. (2007, July 1-4). *Revenge is a dish best served cold: Avengers' accounts of calculated revenge cognitions and assessment of a proposed measure*[Conference paper]. The 20th Annual Conference of the IACM, Budapest, Hungary. <https://ssrn.com/abstract=1100731>
- Keyishian, H. (1982). Karen Horney on "the value of vindictivenes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42*, 21-26. <https://doi.org/10.1007/BF01253430>
- Kline, T. J.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 Lee, T. L., Gelfand, M. J., & Kashima, Y. (2014). The serial reproduction of conflict: Third parties escalate conflict through communication bia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4*, 68-72. <https://doi.org/10.1016/j.jesp.2014.04.006>
- Lickel, B., Miller, N., Stenstrom, D. M., Denson, T. F., & Schmader, T. (2006). Vicarious retribution: The role of collective blame in intergroup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372-390.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1004_6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Jr,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6), 1586-1603. <http://doi.org/10.1037/0022-3514.75.6.1586>
- McCullough, M. E., Fincham, F. D., & Tsang, J. A. (2003). Forgiveness, forbearance, and time: the temporal unfolding of transgression-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540-557. <https://doi.org/10.1037/0022-3514.84.3.540>
- McCullough, M. E., Kurzban, R., & Tabak, B. A. (2013). Cognitive systems for revenge and forgivenes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6*(1), 1-15. <https://doi.org/10.1017/S0140525X11002160>
- McClelland, R. T. (2010). Normal narcissism and its pleasures.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31*(2), 85-125. <https://www.jstor.org/stable/43854268>
- Miller, A. J., Worthington Jr, E. L., & McDaniel, M. A. (2008). Gender and forgiveness: A meta-analytic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8), 843-876. <https://doi.org/10.1521/jscp.2008.27.8.843>
- Mullins, C. W., Wright, R., & Jacobs, B. A. (2004). Gender, streetlife and criminal retaliation. *Criminology, 42*(4), 911-940. <https://doi.org/10.1111/j.1745-9125.2004.tb00540.x>
- Osborne, J. W., & Costello, A. B. (2019). Sample size and subject to item ratio in principal components

-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9(1), 11. <https://doi.org/10.7275/ktzq-jq66>
- Parent, L. E., Natale, W., & Ziadi, N. (2009). Compositional nutrient diagnosis of corn using the Mahalanobis distance as nutrient imbalance index. *Canadian Journal of Soil Science*, 89(4), 383-390. <https://doi.org/10.4141/cjss08050>
- Sell, A., Cosmides, L., Tooby, J., Sznycer, D., Von Rueden, C., & Gurven, M. (2009). Human adaptations for the visual assessment of strength and fighting ability from the body and face.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6(1656), 575-584. <https://doi.org/10.1098/rspb.2008.1177>
- Christian, J. S., Christian, M. S., Garza, A. S., & Ellis, A. P. (2012). Examining retaliatory responses to justice violations and recovery attempts in team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6), 1218-1232. <https://doi.org/10.1037/a0029450>
- Stuckless, N., & Goranson, R. (1992). The vengeance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reveng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7(1), 25-42.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vengeance-scale-development-measure-attitudes/docview/1292302083/sequence=4>
- Sukhodolsky, D. G., Golub, A., & Cromwell, E. N.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nger rumination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5), 689-700. <https://doi.org/10.1016/j.trf.2024.02.002>
- Vos, J. M. C. (2003). Het vragende slachtoffer en de wrekende staat. De functie van wrok in een moderne rechtsstaat [The demanding victim and the avenging state. The function of resentment in the modern constitutional state]. *Justitiële verkenningen/Judicial Explorations*, 29(5), 31-45. https://repository.wodc.nl/bitstream/handle/20.500.12832/690/jv0305-artikel-03_tcm28-76762.pdf?sequence=4
- Wang, Q., Bowling, N. A., Tian, Q. T., Alarcon, G. M., & Kwan, H. K. (2018). Workplace harassment intensity and revenge: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1, 213-234. <https://doi.org/10.1007/s10551-016-3243-2>
- Weinberger, D. A., Schwartz, G. E., & Davidson, R. J. (1979). Low-anxious, high-anxious, and repressive coping styles: psychometric patterns and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to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8(4), 369-380. <https://doi.org/10.1037/0021-843X.88.4.369>
- Yoshimura, S. (2007). Goals and emotional outcomes of revenge activi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1), 87-98. <https://doi.org/10.1177/0265407507072592>
- Zhao, H., Xia, Q., He, P., Sheard, G., & Wan, P. (2016). Workplace ostracism and knowledge hiding in servic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59, 84-94. <https://doi.org/10.1016/j.ijhm.2016.09.009>

원고접수일: 2025년 2월 12일

논문심사일: 2025년 4월 2일

게재결정일: 2025년 4월 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5, Vol. 30, No. 3, 589 - 6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11 (K-BSVT-11)

Sang Hee Kim	Jae Min Yoo	Myoung 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Revenge is an act aimed at punishing the perpetrator or returning the inflicted harm, driven by vengefulness. Despite its considerable impac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 remains a valid lack of scales in Korea to systematically measure vengeful tendencies. Consequently, this study sought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Brief Scale of Vengeful Tendencies-11 (K-BSVT-11).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ere performed on a sample of 292 Korean adults, revealing that a two-factor model provided the best fit. While the original scale included a three-factor structure (planning of revenge, resentment, and justification of revenge), this study consolidated these into a two-factor structure: "planning and execution of revenge" and "justification of revenge." This modification may reflect Koreans' tendency to suppress negative emotions, which leads to a greater emphasis on the behavioral and cognitive dimensions over emotional responses in self-report assessments. The K-BSVT-11 exhibited strong internal consistency, and both it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confirmed. Moreover, men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women on all subscales of the K-BSVT-11. In terms of age differences, individuals in their 30s registered higher scores in "planning and execution of revenge" compared with those in their 50s. These findings affirm that the K-BSVT-11 is a psychometrically sound measure of vengeful tendencies within the Korean cultural context. The scale is well-suited for use in both research and applied settings to facilitate the early identification of vengeful tendencies and to inform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Keywords: revenge, scale of vengeful tendencies, validation